

“폭염 어찌 견디나”...광주·전남 무더위쉼터 86% 문 닫아

광주 82% · 전남 90% 폐쇄...코로나19 · 폭염 ‘이중고’
전남도 “지역 특성상 고령인구 많아 지침 강화 후 개방”

올해 여름철 폭염 · 열대야 일수가 평년보다 많아 온열질환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노인들의 유일한 보금자리이자 쉼터인 ‘무더위 쉼터’는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다중이 밀집한 장소와 노인시설 등이 폐쇄되면서 광주와 전남지역 무더위 쉼터 86%가 문을 닫았다.
노인시설,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지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설폐쇄로 자동적으로 출입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노인들은 금융기관과 주민센터, 도서관 등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를 찾

아야 나서야 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도서관 운영시간, 주거지와 거리 등을 이유로 노인들이 상시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광주 지역은 무더위 쉼터 1452개소 중 1193개소가 문을 닫아 전체 82%가 영업을 하지 않고 18% 개소만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전남 22개 시군은 전체 무더위 쉼터 7480개소 중 90%(6700여개소)가 문을 닫아 10%만이 이용할 수 있다.
전남도는 현재 22개시군 중 10개 시군(담양 · 진도 · 강진 · 해남 · 구례 · 장흥 · 순천 · 고흥 · 보성 · 완도)만이 노인시설, 마을 · 복지회관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나머지 12개 시군 중 4개 시군(여수 · 나주 · 광양 · 곡성)은 6월 하순 쉼터가 마련된 노인복지시설을 개방할 예정이다.
나머지 8개 시군(장성 · 화순 · 영광 · 함평 · 목포 · 무안 · 영암 · 신안)은 아직 무더위 쉼터 개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서는 2월27일 이후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휴관하도록 권고했지만 지역 특성상 고령인구 비율이 높아 코로나에 폭염까지 이중고에 시달리는 노인들을 위해 방역 지침을 강화해 무더위 쉼터를 선제적으로 개방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전남은 코로나 청정 구역으로 비교적 지역 내 감염 확산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 한 나머지 시군도 순차적으로 무더위 쉼터를 개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는 노인시



실 운영, 행정안전부는 무더위쉼터와 관련해 각 부처와 의견 조율에 나선 상태다. 방역 지침을 지키는 선에서 노인시설 내의 무더위 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기자

제주 아닌 ‘땅끝’ 해남에 바나나 ‘주렁주렁’...농가 2곳 재배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목 확산...“올해 12톤 수확 예정”



신용균씨가 해남 북평면 용수리 바나나 농장에서 수확을 앞둔 바나나를 보고 있다.(해남군 제공)

제주도에서나 볼 수 있는 바나나가 전남 해남에서도 주렁주렁 열리고 있다.
8일 해남군에 따르면 신용균(74) · 홍홍금씨(70) 부부가 지난해 북평면 600평 농장에 심은 바나나가 7월 수확을 앞두고 있다.
올해 해남에서는 신씨 농가를 포함해

2농가 0.4ha면적에서 12톤의 바나나를 수확할 예정이다.
국내 생산량의 대부분이 기온이 높은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번 해남에서의 대규모 바나나 재배는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목의 급속한 확산을 보여주는 계기로 관심을 모은다.

국내산 바나나는 나무에서 충분히 성숙한 뒤 따기 때문에 맛과 향이 뛰어나고,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돼 고온이나 농약으로 살균처리하는 검역과정을 거치는 수입산에 비해 소비자 선호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바나나는 전체 수입과일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국내산 비중은 0.3%에 불과한 실정으로, 국내산이 수입산에 비해 두배 정도 높은 소매가가 형성돼 농가 고소득 작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아열대작목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내 ICT첨단하우스 2개동 1000㎡에 바나나와 커피, 파인애플, 아메모야, 파파야, 올리브, 용과, 만감류 등 다양한 아열대 작목에 대한 실증 재배를 실시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기후 변화와 소비 성향의 변화로 아열대 작목이 충분히 경쟁력 있는 작물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다양한 작목을 개발해 농가의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육성해 나가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 연구의 메카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등교 연기 99일 만에 전남 모든 학생 등교수업

중1 · 초5~6년 등 4만3천명 등교
특별방역 · 분산등교로 감염 차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등교가 미뤄진 지 99일만인 8일 마침내 전남도내 모든 학교의 전 학년에 걸쳐 등교수업이 이뤄졌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정부의 학교 개별 순차적 등교개학 방침에 의해 도내에서는 중1과 초5~6학년 학생 등 4만3000여명이 마지막 4차 등교수업을 시작했다.
이로써 지난 5월20일 고3과 전교생 60명 이하 초 · 중학교를 시작으로 단계적 · 순차적으로 이뤄진 전남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은 순조롭게 마무리됐으며, 20만6000여명의 학생이 등교수업을 받게 됐다.
장석웅 전남교육감은 4차 등교수업 첫날인 8일 나주이화학교와 능주고등학교를 방문, 등교수업에 나선 학생과 교직원들을 격려했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도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전 학년 등교수업이 이뤄짐에 따라 학생 밀집도 및 접촉 최소화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과대학교와 과밀학급의 학생 분산 및 방역대책을 세워 한 단 명의 학생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교생 900명 이상 과대 초등학교(20교)의 경우 1·2학년 우선 등교를 권장하고, 3~6학년은 격일 또는 격주제 등교를 운영해 등교학생이 전체의 3분의 2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중 · 고등학교도 지역감염 우려가 확산되는 학교의 경우 등교학생이 3분의 2 이상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등교수업에 대비해 도내 953개 모든 학교에 특별방역을 완료하고, 일시적 관찰실을 설치(953개교)하는 등 한층 강화된 방역대책을 세웠다.
이와 함께 도내 8개 특수학교 학생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차량 내 거리두기 확보를 위해 1억44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통학버스를 증차해 버스 한 대 당 승차인원을 20명 이내로 조정했다.
장 교육감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여전히 여전한 상황에서도 각급 학교의 등교수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은 모든 교육가족들이 한 마음으로 협력해준 결과”라면서 “등교가 이뤄졌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여전히 만만 교육청과 학교는 학생 밀집도 최소화와 생활방역을 철저히 지켜 어렵게 이룬 등교수업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한 시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환 기자

내륙의 바다 ‘장성호’

수변 데크길(왼쪽)

엘로우출렁다리

황금빛출렁다리

수변 데크길(오른쪽)

엘로우 시티 Jangseong